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6029호 2026년 11월 6일 금요일



이커머스
연중 최대 쇼핑대전
AI로 차별화
L1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동물실험 대체기술
중국 시장 공략
L2



알록달록 꽃길에 예술이 톡톡… 문밖에 펼쳐진 동화 속 정원

아파트의 미학(美學)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은평구 대조동 2451가구 매머드급 단지
GTX·3호선 등 환승거점 연신내역 도보권
복합개발 추진… 교육·생활 인프라도 풍성

단지 내 곡선길 따라 아기자기한 식물 식재
식재된 나무와 북한산 산세 한 풍경으로
티하우스·수경시설 등 조화롭게 어우러져

플라밍고·키네틱 조형물 등 재밌는 볼거리
곳곳에 예술작품 같은 다채로운 쉼터 배치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석가산을 둘러싼 정원과 2층 티하우스.



서울 은평구 불광역에서 나와 빌라가 이어진 길을 걷다 보면 새 아파트가 보이기 시작한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서울 은평구 대조동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다. 연신내역 GTX-A 개통에 이어 대규모 재개발 단지가 입주하면서 은평의 주거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현대건설이 대조1구역을 재개발한 이곳은 대조동 88·89 일원에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28개 동, 총 2451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다. 불광5구역과 갈현1구역 등 주변 정비사업에 앞서 입주민을 맞으며 일대 주거지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

분양 당시에는 가격이 먼저 화제였다. 지난해 5월 전용 59㎡ 최고 분양가가 11억5060만원에 책정되며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입주를 앞둔 지난달 9일 같은 면적대 입주권이 13억738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단지에서 도보권에 있는 연신내역은 지하철 3·6호선에 GTX-A까지 지나는 환승 거점이다. 지난 2024년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하면서 연신내역에서 서울역까지 열차로 약 6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됐다. 3호선을 타면 종로 일대 업무지구, 6호선으로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공덕역 등 업무지구로도 이동할 수 있다.

지역 안에 일자리를 늘리려는 개발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옛 국립보건원 부지의 ‘서울창조타운’은 디지털미디어·영상 등 창조산업을 중심으로 업무·주거·상업 기능을 결합하는 사업이다. 수색·DMC역 일대에서도 철도 부지와 역세권을 활용한 복합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 여건은 대은초등학교가 단지에 인접해 있다는 점이 꼽힌다. 주변에는 예일여중·고와 동명여고 등이 있다.

NC백화점 불광점과 이마트 은평점, 대조전통시장과 연서시장 등 생활 인프라도 가깝다.

단지 입구에선 날개처럼 가로로 펼쳐진 문주가 입주민을 맞이한다. 짙은 갈색 바탕의 금빛 힐스테이트 로고를 중심으로 양옆에 출입구가 이어진다.

단지 내 산책길은 황토빛 곡선을 그린다. 길 가장자리를 좁게 두른 잔디 너머로 보랏빛 꽃이 무리 지어 폈다. 흰 자갈 위에는 알록달록한 풀들이 자리 잡았다.

식물의 색과 질감에서 계절의 변화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은빛 이삭과 옅은 분홍빛 꽃이 가을 분위기를 더한다.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는 풀들 위로는 소나무가 중심을 잡고 있다.

식재 공간을 나누는 반듯한 벽 위에는 돌을 얹어 볼거리를 만들었다. 돌이 벽면에서 녹아내리는 듯한 모습은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지속’ 속 시계를 떠올린다.

동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는 북한산은 정원의 배경이 된다. 단지 안의 식물과 담장 밖 산세가 한 풍경으로 이어진다.

산책길 곳곳에는 노란색이 작은 표지처럼 놓여 있다. 돌과 소나무가 어우러진 정원에 밝고 경쾌한 색을 보탰다.

동 출입구로 향하는 길목에는 라운지처럼 널찍한 야외 휴게공간도 마련했다. 집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앉아 쉬거나 이웃과 이야기를 나눌 만한 자리다. 바람과 햇살이 드는 개방된 공간에 야간 조명을 더해, 해가 진 뒤에도 머물 수 있도록 했다.

석가산이 둘러선 정원은 핵심 조경이다. 높낮이가 다른 회색 바위들이 양쪽에 솟아 있다. 발치에는 둥근 자갈을 넓게 깔고 평평한 디딤돌을 띄엄띄엄 놓아, 시선이 바위 위에서 발밑까지 이어진다. 조명에 반짝이는 티하우스와 수경시설이 어우러져 특별한 정원으로 들어서는 느낌을 준다.

티하우스는 모서리가 둥근 프레임 가장자리에 따뜻한 색의 조명을 둘렀다. 1층은 넓은 통유리 너머로 정원을 바라보도록 하고, 2층은 측면을 열어둔 테라스에 유리 난간을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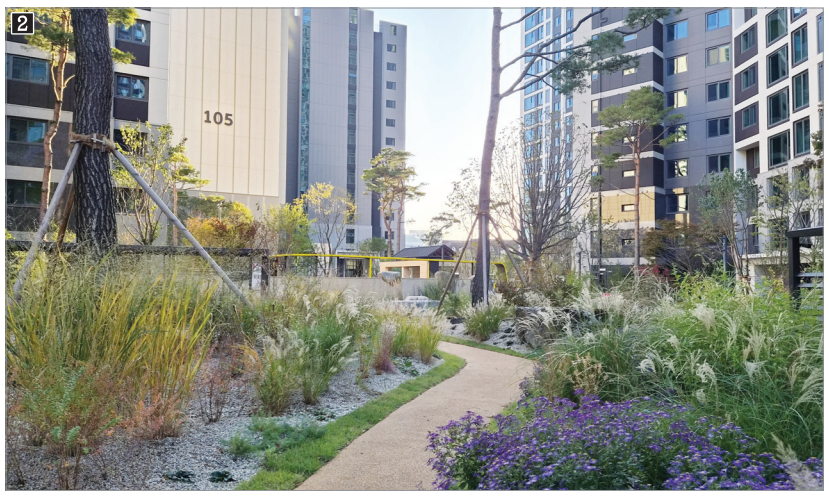
티하우스 앞에는 길게 뻗은 수경시설이 놓여 있다. 주변의 돌과 자갈, 소나무가 함께 시야에 들어온다. 수직으로 솟은 석가산과 낮게 펼쳐진 수경 공간, 그 뒤의 2층 티하우스가 가득 정원을 채운다.

석가산 곁의 조형물은 크기가 다른 원형 구조물들이 연결된 키네틱 조각으로, 각 부분이 바람에 따라 독립적으로 회전하도록 설계됐다.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조형물이 달라지는 모습까지 정원의 볼거리가 된다.

2단지 정원에서는 분홍색 플라밍고들이 시선을 붙잡는다. 가늘고 긴 다리까지 곡선이 이어져 생동감이 느껴진다. 목을 길게 세운 새도 있고, 고개를 낮춰 물을 마시는 듯한 새도 있다. 수공간과 어울리는 동물인 플라밍고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감상하도록 배치했다.

쉬는 자리에도 예술작품 같은 가구를 놓았다. 분홍색 원통형 의자와 가운데가 잘록하게 들어간 노란색 벤치가 대표적이다. 자리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면 야외 전시 한가운데서 쉬는 듯한 기분이 든다.

경로당 앞에는 작은 텃밭과 운동시설, 평상처럼 넓은 휴게공간이 함께 놓였다. 좁은 벤치보다 앉는 면을 넓게 펼쳐 여럿이 둘러앉거나 쉬어갈 만하다.







1 정원을 중심으로 양쪽에 솟은 석가산.
2 소나무 아래 보랏빛 꽃과 은빛 이삭이 어우러진 산책길.
3 플라밍고 조형물과 티하우스가 배치된 2단지 정원.
4 정원에 배치된 플라밍고 조형물. /성채리 기자

/성채리 기자 cr56@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아시안컵 축구 연기 후폭풍…각국 사령탑 거취 ‘안갯속’
▲703홈런 전설 푸홀스, MLB 팀 지휘봉 잡나… 휴스턴 감독 면접 /사진 뉴시스
▲여자농구 신한은행, ‘우승 후보’ 우리은행 65-58 격파
▲北 태권도 단독 등재 신청, 2년 전인데…국가유산청 해명은?
▲교황 보러 100만명 서울 온다…천주교 WYD 본격 준비
▲최휘영 장관, 앤트로픽 국내 도서 무단 활용에 “현행법 한계”